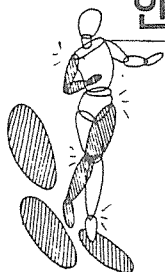


안전과 “무리수(無理手)”



민철기

요사이 바둑이 널리 보급되면서 일상 용어에 바둑용어가 많이 인용된다. 그 중의 하나가 이 “무리수”라는 좋지 않은 어휘인데, 우선 뜻부터 설명하자면 글자 그대로 무리(無理)한 수(手)란 얘기다.

대국을 하다가 세가 불리하다거나 이길 가망이 없어 이치에 닿지도 않는 어거지수를 놓을 때 우리는 무리수를 둔다고 하며 나무라게 된다.

바둑도 대자연의 심오한 섭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 무리수를 두게 되면 패하게 됨은 너무도 당연한 노릇이다.

태양계만 보더라도 우리의 지구와 달과 다른 혹성들이 빈틈없이 질서정연하게, 극미(極微)한 오차도 없이 궤도운행을 하고 있으며 물리학의 원자(原子)세계에서도 똑같은 법질서가 유지되고 있음은 이제 거의 상식화되어 있다.

동양사상에서 말하는 ‘이(理)’를 자연의 이치를 뜻하는 것으로 볼 때 이에 역

행하는 무리(無理)란 바로 대자연의 법칙을 위반하는 일이고 그 결과는 실패나 파멸일 뿐이다.

이제부터 안전 생활에서의 무리를 닦해 보기로 하자.

필자는 요사이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마을의 뒷산으로 올라가 약수도 마시고 운동도 하고 여러 사람과 얘기도 나누고 내려온다. 그런데 내가 관심을 갖는 프로그램 중의 하나가 요사이 노인층에 널리 보급되어 있는 “맷돌체조”라는 것이다.

맨손 체조이면서 적당한 울동, 지압, 단전호흡 등이 가미되어 매우 재미있고 힘도 많이 드는 운동이다. 시간도 짧지 않아 약 20분 이상이 소요되는데, 처음 며칠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숨이 차고 몸도 제대로 가눌 수가 없었다.

그런데 앞에 나서서 지도를 하는 할머니(?)는 나이도 나보다 대 여섯이나 더

연상이었지만 동작이 어찌나 유연하고
노익장을 과시했던지 처음에는 나보다
훨씬 연하로 착각했을 정도였다.

여성이 저 정도인데 남성인 체면에 하
는 오기(?)가 발동되어, 허리굽히기 운
동을 하면서 무리한 힘은 가했다가 허리
가 빠긋하기 직전까지 갔다가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한 일이 있었다. 오랫동안 사
용하지 않던 근육을 예비 동작없이 갑작
스레 활용하려다가 무리수를 범할 뻔했
던 것이다.

공장을 비롯한 직장에서 우리는 뜻하
지 않게, 일시적인 감정이나 우쭐한 자만
심(?)에 사로잡혀서 예기치 않은 사고
를 내는 일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런 형태
를 흔히 과잉충성이란 말로 얼버무리려
고 하는데 이는 잘못된 표현이다. 충성
(忠誠)이란 전제주의나 봉건주의시대
에서 사용되었던 구세대의 유물이고 오늘
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우선 모든 것을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버릇부터 키
워야 하지 않을까?

이는 남을 위하기에 앞서 나부터 생각
하자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하는 일에 앞
장을 서려면 우선 내 몸부터, 내 안전 부
터 도모하자는 것이다. 내 몸이 성해야
회사를 위해서 더 땀 수 있고 남을 위해서
희생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뜻이다.


누차 강조하는 일이지만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무리수는 절대 두지말아야 한
다. 무리수 뒤에는 반드시 응분의 벌이
따르게 마련이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주

위에 해독을 끼칠 뿐이다.

만약 긴박한 사정에서 위험을 무릅쓰
고 무리해서 중량물을 혼자 옮기다가 허
리를 크게 다쳐 여생을 불구의 몸으로 지
내게 되었을 때 그 득실을 따져보면 이치
는 자명해진다. 단기적인 안목으로 보아
회사의 긴급한 상황을 도와 일시적인 이
윤추구에 일조가 되었을 망정, 허리다침
으로 인해서 발생한 일개인의 신체적, 정
신적 고통, 그 가족에 미치는 보이지 않는
심리적인 영향, 회사가 그에게 배려해야
할 물리적이고도 정신적인 부담을 고려
한다면 그 판단은 쉬울 것이다.

진정으로 회사를 위하는 정신은 위험
으로부터 내 몸을 아끼고 보호함으로써
축적된 생산력과 정력으로 무리없이 일
을 처리해 나가는 것이며, 또한 이러한
풍토를 조성하도록 기업주는 부단히 종
업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
이다.

“네 자신을 위하는 것이 곧 회사를 위
하는 길이다”라는 철학이 언뜻 보기에는
기업을 위축시키는 비생산적 논리일런지
는 모르지만, 현명한 기업주라면 이것이
야말로 노사가 오래도록 공존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위험하다고 생각되면 절대 혼자하려고
만용을 부리자 말자. 상사에게 보고해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아예 포기하고 기다
려라. 왜냐하면 사고로 인해 큰 손해를
끼치는 것보다는 훨씬 나으니까. 

<필자=안전전문가>